

‘AI 직격탄’ 전남도 가금류 사육지형 바꾼다

철새 도래지 3km내 축사 이전하고 축종 변경 등 추진 밀집단지, 농가 간 500m 이상 떨어지도록 유희기로

‘AI 직격탄’을 맞은 전남도가 위험지역의 가금류 사육지형을 바꾼다.

철새 도래지 3km내 축사는 이전하고, 나주·영암 등 오리사육 밀집단지는 농가 간 반경 500m 이상 떨어지도록 이전하거나 축종 변경을 유도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매년 되풀이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축사 이전과 축종 변경 등 대책을 추진한다. 배곡곶 밀집단지 있는 농가를 일정거리 이상 분산시켜 확산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전남지역 AI 중점방역관리지구는 11개 시군 49개 읍면동이다. ▲최근 3년 이내 야생조류 등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9개 시군 38개 읍면동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7개 시군 17개 읍면동 ▲축산농가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1km 이내 20호 이상인 1개 면 등이다. 이

중 5개 시군 7개 읍면동은 중복됐다.

전남도는 해당지구 내 가금농가가 주변 농가로부터 500m 이상, 철새 도래지로부터 3k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면 신속비용 등을 지원한다. 가금농가들이 법

인을 구성해 축산 단지화를 추진하거나, 가금류 외 다른 축종으로 변경해 사육할 때도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보조 80% 자부담 20%이며, 축종별 지원 한도액은 자부담을 포함해 산란계 36억원, 육계 18억원, 육용오리 25억원이다.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엄격한 방역시설을 갖춘 동물복지형 축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배운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지속되는 고병원성 AI 발생을 최소화하려면 철새 도래지 3km 이내 축사와 과거 발생 농가로부터 500m 이내 밀집 사육지 축사 이전이 매우 중요하다”며 해당 시군과 축산농가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올 겨울 AI ‘거꾸로’...남부지역서 먼저 검출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통상 중부지역에서 먼저 검출되던 것과 달리 남부지역에서 먼저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올겨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예년과는 달리 순천·제주 등 남부지역(11월13일)에서 먼저 검출된 뒤 한 달이 지나 전남·용인 등 중부(12월13일)에서 검

출됐다. 이는 고방오리·홍머리오리 등의 장거리 이동 철새들이 북극해로부터 홍콩·중국 남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남해안과 제주도 등 남부지역을 경유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AI 바이러스는 겨울 철새가 남하하는 경로를 따라 검출되기 때문에 중부지역에서 먼저 검출된다.

연구진은 또 올겨울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유전자형은 같지만, 유전적 계통이

다른 2종류의 H5N6형이 11월부터 동시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2016년에는 10월 이후 한 가지 유전자형의 바이러스(H5N6)가 검출되다가 그해 12월 중순부터 새로운 유전자형의 바이러스(H5N8)가 함께 검출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겨울 철새가 북상하기 시작하는 2월부터 저수지, 습지 등 철새 서식지 주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찰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자살 3번째 기도한 여고생 극적 구조

광주북부경찰 실종전담팀 발빠른 대응

경찰이 집단자살을 기도한 가출 여고생을 적극적으로 구해냈다. 이 학생은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이들과 세 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17·고2)양이 지난해 12월29일 오전 11시 30분께 방과 후에도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A양 어머니의 실종신고가 같은 날 접수됐다.

경찰은 A양의 집 책상 아래에서 번개탄이 발견되고 컴퓨터에서는 ‘자살 사이트’, ‘자살 방법’ 등을 검색한 이력을 찾았다. 책상 구석에서는 ‘엄마 미안’이라고 적힌 쪽지도 나왔다.

북부서는 A양이 위험하다고 판단, 실종전담팀 6명 전원을 투입했다.

스마트폰 위치 추적을 통해 A양이 대구 달서구에 간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달서경찰에 협조공문을 보내 주변

을 수색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대구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가 꺼진 장소 주변 숙박업소를 수색했지만 A양을 발견하지 못했다.

북부서 실종전담팀은 다시 A양의 통화내역을 확인해 1일 오후 3시께 대구에서 마지막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북부서 실종전담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대구경찰은 마지막 통화 인물을 중심으로 A양의 행적을 추적했고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20대 남녀와 모텔에 있던 A양을 찾았다.

경찰 조사결과 A양은 학업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알게된 20대 남녀 2명을 대구에서 만나 이들과 두 차례 동반 자살에 실패하고 세번째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다.

김양은 현재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

3남매 화재 참사 실화 잠정 결론

친모 오늘 검찰 송치

삼남매가 참변을 당한 두암동 화재사건(광주일보 2일자 6면)에 대해 방화 여부를 조사한 경찰이 친모의 실화로 잠정 결론지었다.

광주북부경찰은 “아파트에 불을 내게 해 삼남매가 숨진 원인을 제공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로 친모 정모(여·23)씨를 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31일 새벽 2시25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 거실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끄다 불이 나게 한 혐의다. 이 화재로 큰아들(4), 작은아들(2), 막내딸(15개월) 등 삼남매가 질식사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화재 직전 술에 취해 전 남편에서 “죽고 싶다”, “나 이 세상에서 사라질거야” 등의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방화를 의심받았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 정씨는 “아이들이 잠을 자던 작은방 앞에서 이불에 비벼 끈 담뱃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부검·현장검증, 탐문·통신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실화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초등생 면접 설레고 신나요” 2018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면접이 진행된 5일 광주시 서구 유촌초등학교 강당에서 예비신입생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회생절차 때 가장 먼저 값을 채우는 ‘자녀 양육비’

올해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이 이혼한 옛 배우자에게 줘야 하는 양육비는 본인의 빚 가운데 가장 먼저 값을 수 있는 채무로 간주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가 최우선으로 받는 채권인 ‘개인회생재단채권’에 양육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회생제도

실무개산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7일 밝혔다.

중전의 회생절차에서는 여러 곳에 빚을 진 사람에게 양육비는 가장 먼저 갚아야 할 채무가 아니었다. 양육비는 채무자의 ‘추가 생계비’ 항목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 빚을 진 채로 이혼한 사람이 양육

비를 옛 배우자에게 제때 주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양육비를 다른 빚보다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개산안이 시행되면서 옛 배우자는 매월 확실하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빚을 지고 있는 옛 배우자의 부채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5·18 암매장 발굴 조사 이번주 재개

옛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 테니스장 인근 기초작업

이르면 이번 주부터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발굴 조사가 재개된다.

5·18기념재단은 “이번주부터 옛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에서 암매장 발굴조사를 위해 기초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작업 대상지는 교도소 부지 북동쪽 담장에서 약 10m 떨어진 테니스장 인근으로, 기존 발굴조사구역과 가까운 곳이다. 5·18 당시 교도소에 주둔했던 3공수 여단 신순용 전 소령과 유모 병장은 이 장소를 암매장 추정지로 지목했다. 땅속 탐사레이더(GPR) 탐색에서도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신 전 소령은 “교도소 북쪽 야산에 시

신 10여구를 매장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기존 조사는 담장 쪽으로 너무 붙어서 발굴 작업을 하는 것 같다”고 했으며, 유병장도 같은 의견을 5·18재단에 전달했다.

현재 이곳에는 테니스장과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쌓은 5m 흙더미가 언덕 형태로 있다. 재단은 본격 발굴조사에 앞서 대형 굴착기로 이 흙을 모두 걷어내 1980년 당시 지형 상태에 복원할 계획이다.

재단은 자체 진실조사사업비로 책정한 예산 1억원을 발굴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며, 이 비용이면 가장 3달간 작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공시 낙방에 자살 장소 물색하다...커플과 시비 붙어 경찰서행



○경향신문무시행

에 2차례 낙방한 20대 남성이 자살장소를 물색하던 중 진한(?)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커플과 ‘물카촬영’ 오해로 시비가 붙는 바람에 경찰서행.

○7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연이은 시험 낙방에 자살을 결심한 전모(24)씨는 지난 6일 밤 11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창우체육 주변에서 당시 데이트를 즐기고 있던 20대 커플과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과 관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옷소매에 있던 흉기가 노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당시 다소 과한 애정행위를 하고 있던 20대 커플이 자살장소를 물색중인 전씨의 행동을 보고 자신들을 물레 촬영하는 것으로 오해한 사건”이라며 “전씨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지 않았고, 사안도 경미해 조사 후 귀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최고의 투자가치 / 자신있게 추천 / 사정상 **급매** 합니다.

- 전북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411-10번지외 10필지 (월정 삼거리 코너, 구 월정초등학교 자리)
- 대지 5843평, 건물 512평
- 계획관리지역/ 학교용지 등등
- 현재 관관농원/ 펜션/ 식당/ 캠핑장 운영중
- 2차선 도로접, 삼거리 코너, 계곡등 최고의 위치
- 연수원/ 수련원/ 요양(병)원/ 펜션/ 캠핑장 등등
- 모든 용도개발 가능
- 시세 30억, 급매 20억 (일시불 조건)
- 주인직매 010-3605-5000

